



유럽의 정보통신 시장 동향(II)

조사부

라. 전기통신 시장 동향

유럽의 전기통신서비스와 기기 시장은 1994년에 1,520億 ECU에 달함으로써 견실한 5.7% 성장을 기록했다.

이 시장은 1995년에 6.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유저 진출은 정보기술에 대한 지출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는 이동통신과 데이터 네트워크 기기 기술과 광역통신망과 LAN 통신망 서비스에서 대부분의 성장 기회가 창출됨에 따라 계속될 전망이다. 이것이 유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하드웨어의 점유율을 잠식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다.

유럽의 전기통신 시장 동향과 전망

(단위 : 10억 ECU, %)

	1994(value)	'94(%)	'94/'93(%)	'95/'94(%)
E U	133	88	5.9	6.8
독 일	42	28	4.4	4.5
프 랑 스	24	16	8.7	8.2
영 국	24	16	3.8	5.3
이 탈 리 아	16	11	6.6	8.8
스 페 인	9	6	5.4	8.6
기 타 EU	17	11	8.1	9.8
E F T A	19	12	4.7	4.8
서 유 럽	152	100	5.7	6.5

전기통신기기 시장은 1994년에 260億 ECU을 달성하여 4.5%의 감소를 기록했다.

커스터머의 기기부문의 주요 성장기회는 물론 유저들의 이동통신 기기 구입으로 부터이다. 이동통

신기기 시장은 그렇지 않으면 느린 성장을 기록했을 전기통신 시장에서 빠른 성장을 보인 부문이다.

서비스 제공 장비시장은 공중전화 공급업자들이 기기 투자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계속 삭감함으로

써 수요 약화의 압박을 겪고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기 시장이 유일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부문이다.

음성 및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은 유럽의 전기통신 시장의 가장 큰 부문이다.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은 1994년 1,220億 ECU에 달해 8.3% 성장을 보였다.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많은 동향들은 다음과 같다.

- 국제서비스의 경쟁 심화
- ISDN, ATM같은 고속 테크놀로지의 이전
- 이동통신 서비스의 신속한 채용
- 전문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로의 이전
- 기본 네트워크 서비스의 자유화

Community가 지향하는 유럽 정보사회로의 이전으로 전기통신 하부구조와 이들 네트워크를 효과적이고 폭넓게 보급시키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에 대한 개인 및 공공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기통신 자유화가 진정한 유럽연맹(European Union)의 창조에 근본이 된다는 확고하고 보편적인 믿음에 의해 달성될 것이다.

(1) 국별동향

나라마다 국가의 규제와 보호를 취해온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럽의 통신시장의 성장은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유져, 서비스

제공자, 네트워크 운영자들은 보편적으로 유럽시장의 완전개방으로 일어날 가장 우수하고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를 바라고 있지만 앞으로의 공동산업정책과 공동 규제에 대한 현재의 협약은 아직 너무나 부족하다.

1987년 녹색(Green Paper)합의에 따라 음성서비스의 완전경쟁이라는 1998년의 목표는 첫단계를 실현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정의 정도를 보면 유럽은 경쟁을 옹호하는 방향의 먼길을 가고 있다. 1998년까지 착수될 조치는 첫단계로 완전 네트워크 경쟁으로 방향이 주어질 것이다.

1995년 녹색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분명한 검토를 제공할 전망이다. 서비스 차원에서 뿐 아니라 설비 단계에서도 경쟁개발을 장려하여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의 진정한 시장 가격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트워크간의 경쟁장려는 유럽의 사업유저 및 소비자 유져에게 가장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보장해주는 기술발전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실 모든 증거들이 유럽의 유져들이 전기통신 공급업자에 대해서 더 많은 선택권을 바라고 있으며 이러한 선택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줄여주고 그들의 사업의 효율성과 국제 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준다.

영국, 독일, 프랑스가 선구적 역할을 담당함에 따라 유럽 각국

은 EU 당국에 의해 정해진 전기통신 정책목표를 향하여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 독일 : 부진한 성장

독일의 전기통신시장은 28%의 점유율로 유럽 최대시장이다.

1994년에는 4.4% 성장했고 1995년에는 4.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기통신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연방정부가 전기통신 하부구조에 이례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했던 이후 1993년대 중반내내 부진을 유지한 것 같다.

패킷 교환 전화 네트워크 시장의 견실한 성장과 가격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진 이동통신 시장의 붐, 그리고 폭발적인 ISDN 시장이 시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러한 강한 성장세는 계속되는 높은 관세(특히 PSDN 서비스에서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PSDN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름에 따라 연결 설치 수가 계획에 못미치고 있다.

— 프랑스 : 첨단기술 규제철폐 지연

프랑스의 전기통신 시장은 높은 유져의 투자와 수많은 서비스와 기기 공급업체들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경쟁에 대한 프랑스 행정부의 점진적인 접근은 공급업체 제휴의 전개로 시도되었다.

결국 자유화 과정은 아직도 유럽에서 가장 느린 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시장은 첨단 기능을 자랑하며 신기술

이용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지속해오고있다.

프랑스는 현재 독일에 이어 유럽에서 두번째 큰 ISDN 시장이며 최대의 패킷 교환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이다. 향상된 FAX와 X.400 서비스가 높은 보급률을 자랑한다.

한편 이동통신 서비스는 1993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매우 높은 관세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1994년 프랑스의 전기통신 시장은 8.7% 성장했으며 1995년에는 8.2%의 성장이 전망된다.

— 영국 : 경쟁을 가장 잘 이용한 나라

영국은 지난 10년에 걸쳐 강한 경쟁으로 이익을 누려왔다. 현재 전기통신 서비스 제공이 허용된 40개 이상의 케이블 TV회사를 포함하여 140개 이상의 공중 전기 통신업체들이 있다.

자유로운 시장 환경의 결과로 고객들은 보다 향상된 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영국의 사업체들은 현재 유럽에서 가장 낮은 전기통신 관련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유리한 상황이 영국 내의 전기통신 시장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는 요인들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규제가 철폐된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심한 경쟁을 가져왔으며 수준 높은 정보기술 유저들 사이에서 높은 정보기술 보급을 가져왔다. 영국의 이러한 경쟁은 계속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가격경쟁과 높은 기술 보급률은 유럽 평균으로 볼때 유럽의 전기통신 총수입 성장률은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로 1994년 영국의 전기통신 시장은 3.8% 성장했으며 1995년에는 5.3%의 성장이 전망된다. 1995년의 성장은 주로 ISDN시장과 이동통신 서비스 시장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들 두 시장 부문은 영국의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 이탈리아 : 유럽수준 도달 지연

이탈리아는 전기통신과 디지털 기술의 보급이 가장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해 왔다. 공중 전기통신 사업자들이 PSDN, PSTN, ISDN 네트워크의 이용을 확대시키고 신장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관세인하로), 이탈리아 전기통신 시장의 성장은 유럽 평균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기통신 시장은 1994년에 6.6% 성장했으며 1995년에는 8.8%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동통신 음성기기와 서비스 부문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 부문은 제2사업자의 출현으로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ISDN 시장은 부상하고 있으며 기존의 유저들이 차용회선에서 ISDN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시장 수요가 개발됨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은 데이터 전송,

Outsourcing, 부가가치 서비스에서 경쟁을 규제하는 새로운 법의 도입에 따른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 스페인 : 성장의 여지 충분

열악한 사회 경제적 환경에 의해 얼어붙은 스페인의 전기통신 시장은 아직도 한 국가의 규모에 불충분한 저개발 상태에 있다.

낮은 보급률을 감안하면 아직도 성장의 여지는 많다. 그러나 규모와 질(디지털화율의 저조)에 있어서의 빈약한 하부구조에도 불구하고 기기에 대한 투자확대는 실패했고 혁신적인 네트워크 서비스의 개발은 유럽 평균에도 못미칠 정도로 느린 상태이다. 스페인 경제의 전반적인 상태가 예상되는 많은 동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1994년 시장은 5.4% 성장했다. 1995년에는 8.6%의 성장이 예상된다.

PSDN 네트워크는 성공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새로운 네트워크 센터 40개, 신규 어플리케이션 수의 14% 증가). 한편 ISDN 서비스는 주요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1995년에는 전국에 걸쳐 ISDN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의 확장이 완성될 것이다.

— 기타국 동향

기타 유럽국가들 중에서 네덜란드와 베네룩스는 비교적 강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포르투갈과 그리이스는 그들의 전기통신시장을 현대화하려는 그들의 신속한 노력이 두드러진다.

대조적으로 스웨덴과 핀란드는 아직도 쇠퇴를 겪고 있는 나라중에 하나이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위스 또한 유럽 평균에 비해 부진한 성장을 경험해 왔다.

(2) 제품 부문별 동향

유럽의 통신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분은 광역통신망 서비스(wide area network service)와 이동통신기기이다.

네트워크 서비스, 이동통신 서비스, 그리고 교환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1994년에 30% 이상 증가했다. 이동통신기기는 작년엔 9% 성장했다.

— 통신기기

고객의 일반통신기기 부문에서 성장의 주요 기회는 유선의 이동통신기기 채용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동통신기기 시장(카폰, 코드리스폰, 휴대폰)은 그렇지 않으면 성장이 느린 전기통신부문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부문이다.

가격하락과 인하는 기기 매출이 추가적인 설치와 유지보수 총수입만이 차지할 정도로 PABX시장을 침체시키고 있다.

전화, 팩스 등의 단말기기에 대한 유지지출은 향후 몇년간은 매년 1% 조금 넘게 증가될 것이다.

ISDN, ATM, Frame Relay같은 새로운 기술이 통합된 제품이 새로운 시장의 성장을 이끌게 될 것이다. 아울러 GSM, DCS같은 이동통신 기술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을 또

다시 확대시켜 줄 것이다.

위와 같은 추세는 1994년에 1.1%의 완만한 성장을 가져왔다. 전체시장은 110億 ECU에 이르게 될 것이다. 1995년에는 1.2%의 성장이 예상된다.

기기에 제공하는 서비스 시장은 공중 전기통신 사업자들이 이들 기기 구입에 쓸 수 있는 예산을 계속 축소 함에 따라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음성 서비스에 대한 기기 설비시장은 계속 약화되어 왔다. 반대로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기는 잘 팔리고 있다. 공중 전기통신기기 시장에 대한 앞으로의 성장 기회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부문에서 그리고 데이터와 음성, 그리고 화상을 제공하는 기기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서비스 설비를 위한 기기시장은 1994년에 8.1% 후퇴하여 150億 ECU을 기록했다. 1995년에는 또 다시 7.6%의 후퇴가 전망된다.

— 음성망 서비스(Voice network service) : 이동통신 서비스가 성장 주도

음성망 서비스시장은 1994년 1,030億 ECU에 달해 지금까지 이 부문을 최대의 통신부문으로 만들어 왔다.

이 시장은 1994년에 7.5% 성장했으며 1995년에는 8.0%의 성장이 전망된다. 성장기회를 엿볼 수 있는 주요 분야는 붐이 일고 있는 이동통신 음성서비스 시장에서 이다. 이 부문은 EU의 자유화

바람으로 성장이 주도되고 있다.

유럽에서 PSTN 접속의 설치 베이스는 1994년과 1995년에 연평균 4%의 속도로 증가되어 왔다.

향후 몇년에 걸쳐 똑같은 성장 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1997년에는 2,040萬 접속 베이스를 갖게 될 것이다. 이동통신 서비스와의 접속은 1994년에 35% 이상까지 증가했다.

— 정보망 서비스(data network service) : 최고 성장부문

접속회선 수의 급증은 정보망 서비스 부문을 전기통신시장에서 최고의 성장률로 이끌어 왔다. 1994년에 이 부문은 1993년 대비 12.3% 성장하여 190億 ECU에 이르렀다.

1995년의 성장은 13.6%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시장의 주요 성장요인은 다음과 같다.

- 고정된 Point to point 접속에서 고속으로 연결되는 데이터 서비스로의 추이

- 유저들에게 플렉시블한 가격 구조의 도입

- 아날로그 서비스에서 디지털 서비스로의 추이

- 유럽에서 광역 정보 서비스의 접속회선 총수는 1994년에 440億 회선에 달했다. 1997년에는 총 620億 회선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 기간동안 WAN(wide area network) 접속회선의 보급은 1,000스크린당 1994년에는 107회선에서 1997년에는 130회선으로 늘어날 것이다.

- 광역정보통신망 서비스 시장

에서 ISDN과 PSDN과 같은 교환 서비스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PSDN 시장은 유저가 플렉시블한 데이터 통신 Solution을 지향함에 따라 성장하고 있다.

• 임대 회로서비스와의 접속은 유저들이 실질적인 개인 네트워크 서비스를 지향함에 따라 그 성장속도가 다소 둔화되고 있다.

• CSDN서비스 시장은 유저가 PSDN서비스나 ISDN서비스를 지향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 임대 회로서비스 시장은 최종 유저가 개별적으로 소유하던 회선에서 공유되는 고속 교환 서비스로 이전함에 따라 부진을 겪고 있다.

— 설치 및 유지보수 부문

설치 및 유지보수 시장은 1994년에 3.4% 성장하여 총 40億 ECU를 기록했다. 1995년에는 3.5%의 성장이 전망된다.

— 전기통신 유저 전망

최고의 시장에 의한 통신지출의 성격을 ISDN의 이용도를 분석해서 연구해 보기로 하자.

시장조사회사인 IDC는 유저들에게 ISDN의 이용강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 1에서 매우 사용빈도가 높은 경우 5까지 등급을 매길 것을 요구하여 대형 정보기술 유저의 현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994년 가장 이용도가 강한 ISDN 유저는 재정 부문이었고, 그 다음이 독립제조업과 소매/도매사업 순이었다. 공공부문(중앙 및 지방정부,

건강 및 교육분야)은 일반적으로 개인부문에 비해 ISDN의 사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ISDN의 이용 양상 또한 국가마다 다르다. 가장 ISDN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유저들은 독일이다(2.5등급/최고 5등급).

영국과 스웨덴은 각각 2.3등급으로 아주 높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국가의 이용도는 ISDN 하부구조가 비교적 늦게 발달했기 때문에 각각 1.4등급과 1.2 등급으로 매우 낮다.

3. 소비지역으로서의 유럽

가. 정보기술의 보급

정보기술 보급면에서 볼 때 산업선진국과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국가들간의 갭은 1994년 한해 동안 더 심화되었다.

정보기술의 발전은 각국의 폭넓은 산업발전을 반영하므로 항상 다른 성장 패턴을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화가 먼저 이루어진 국가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첨단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더 높은 생산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독일, 프랑스, 영국이 정보기술 채용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유럽을 주도해 왔다.

이들은 정보기술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산업정책을 펴으로써 이제는 북유럽국가들만이 이들보다 앞서 있다.

대조적으로 최근 유럽의 개발도상국의 정보기술산업의 성장속도

는 그들 자체의 산업현실과 가장 발전된 상태의 산업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문제에 달려 있다.

수요의 부족과 이자율 상승과 같은 일반적인 경제문제는 전통적인 성장의 주도자였던 정보기술의 보급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지난 몇년에 걸쳐 유럽 전역에서 정보기술의 보급이 후퇴했다.

1994년에는 변화가 일어났다. 1994년에는 비교적 견실한 성장이 유럽의 정보기술 시장에 의해 기록되었다. 1995년에 예견되는 추세는 유럽의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정보기술시장의 성장속도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 결과로 정보기술산업 위주의 투자와 지출의 증가를 볼때 유럽 경제의 경쟁력 수준은 3년의 후퇴이후 처음으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추세는 유럽 전역에 고르게 분포되는 것은 아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정보기술 산업 시장은 그들 국가의 전체 명목 성장률을 뛰어넘고 있다.

반대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정보기술 시장은 정보기술의 보급수준이 가장 앞서 있는 유럽 국가들의 수준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 국가의 경제성장률보다도 낮은 성장을 보이고 있다. 가장 앞서 있는 시장과 정보기술 보급이 가장 적은 국가들사이에서 정보기술 보급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첨단 기술보급의 성장 측면에서 이분화

된 유럽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경제의 발전전도(1인당 GDP에 의해 평가해 볼때)와 정보기술 보급수준(GDP금액 對 정보기술 지출의 비율로 평가해 볼때)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면 이러한 양극화 과정의 결과를 잘 알 수 있다.

1인당 GDP 수준이 더 높은 나라일수록 정보기술 보급률도 더 높다. 후발 개발 도상국들은 1인당 GDP와 정보기술 이용도 둘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정보기술 보급의 포화상태 도달은 아직 요원하다.

나) 정보기술 시장에 집중

1993년 지표에 따르면 유럽의 정보기술 시장의 집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유럽의 상위 5개 판매업체들의 종합시장 점유율은 1992년 36%에서 1993년 34%로 감소했다. 12년전인 1982년 이들 판매업체들은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했었다.

비슷한 예로 종합시장 점유율이 유럽의 정보기술시장 수요의 약 40%를 차지하는 업체들의 수는 7개에서 8개로 늘어났다.

여기에서 전체적인 유럽국가들의 숫자는 집중정도에 있어서 국가간의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숫자는 사무기기를 제외한 정보처리(data processing) 부문에만 한정된 것임).

이러한 차이는 성장률과 성장의 구조, 그리고 정보기술산업, 고객

태도의 몇가지 특성들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보기술산업의 집중도가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 사이의 양극화에 비교되는 양극화가 경쟁력 차원에서 일고 있다. 즉 정보기술산업 선진국에서는 경쟁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보기술산업 발전이 늦은 나라에서는 경쟁력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다)소프트 시장에서의 집중

다른 정보기술산업 부문보다 훨씬 더 분화된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은 점점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다.

1993년에는 상위 70개 판매업체가 시장의 63% 이상을 차지했다. 시스템 레벨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툴, 어플리케이션 Solution 등 많은 수의 시장부문과 CASE, 회계관리 소프트웨어 등의 하위부문까지 고려해보면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은 덜 분산된 것 같다.

시스템 제조업체는 31%의 시장점유율로 시장의 리더이다.

유럽의 패키지 소프트웨어 시장의 상위 10개 업체중 현재 6개업체가 시스템 제조업체이다.

그러나 이들의 시장 점유율은 유럽전역에 고르게 분산되고 있지 않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몇몇 국가에서는 시스템 제조업체들이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같은 다른 나라에서보다 훨씬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장악하고 있

다.

시스템 제조업체들은 앞으로도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스템 제조업자들의 성공은 다음에 연유하고 있다.

- 기술소유권, 투자능력, 지식, 인적자원
- 국제적 우위와 하부구조
- 회계관리
- 글로벌한 통합 Solution 제공능력 보유
- 독립 소프트웨어 판매업체들의 성공은 다음과 같은 많은 경쟁우위에 의존하고 있다.
- 글로벌한 시장 및 전략적인 범위
- 판매경영에 대한 우수한 노하우
- 재정적 능력
- 국가경제의 규모와 대규모 국내시장에서 축적된 경험
- 자체 기술의 폭넓은 채택
- 서비스 커스터머에 대한 국제적인 위치
- 글로벌한 하부구조
- 수많은 수직시장의 포괄
- 투자와 위험관리능력과 비용우위

높은 수준의 위기관리, 국제적인 규모의 경영의 필요성, 소프트웨어 제품에 집중적인 R&D 투자 증가 등이 대규모 판매업체의 범주를 출현시키고 있으며 소규모 업체들에게 집중적인 전문전략이 아니면 대안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